

‘어촌수산해양분야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바다의 날(5.31.) 앞두고 어린이 대상 우유갑 활용 친환경 배 만들기 활동 등 -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는 29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는 바다의날(5.31.)을 맞아 공사 어린이집 원생 40여 명을 초청해 ‘농초롱·어초롱*과 함께하는 어촌수산해양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 농초롱·어초롱: 공사 대표 캐릭터로 ‘농초롱’은 영롱하게 빛나도록 농촌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어초롱’은 영롱하게 빛나도록 어촌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에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멸종위기 뱀장어의 일생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바다에 쓰레기가 숨어있다고?’ 영상 강의, 친환경 종이배 만들기 체험 등 자원의 순환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룬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김자영 어촌수산처장은 "환경문제 해결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활동이다."라며 "더 많은 사람이 해양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두 기관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생물을 보존하고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블루카본* 가치 보존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블루카본: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로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속도는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당 부서	어촌수산처	책임자	부 장	손명훈 (061-338-5491)
	어촌사업부	담당자	차 장	채종영 (061-338-5495)